

하반기 배합사료 업계 전망

작금의 대한민국 축산 시장은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양돈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이는 지난 1년 반 이상 극심한 불황에서 이제 조금 나아지려는 양계업계의 호전에 대항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되어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대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닭고기의 소비가 돼지고기의 소비로 상당부분 전이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배합사료 업계 전망은 이변이 없는 한 일단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해 여름 기상 이변으로 인한 미국의 곡물 생산량과 재고의 최저 수준을 겪으면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심각한 국면을 그래도 슬기롭게 지금 까지 지내오고 있다.

고진감래라 했나? 지난 해 말 2013년 전망에서 '기후와 환율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내년도의 곡물가격 상승 예상 폭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 이라고 했었는데 지난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 전망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김진형 전무
(주)카길애그리퓨리나

1. 2012년도 총 사료 공급량은 전년대비 110.9% 증가, 그런데 종계와 육계는 101% 수준...

2012년 한국 총 사료생산량은 역대 최대의 생산 신기록을 세워서 18,479,536톤을 생산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총 생산량인 16,664,426톤에 비해 110.9%의 상당한 양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양돈이 126.9%의 증가로 이끌었고, 양계는 102.2% 증가로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종계와 육계는 101%대의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결과인데 왜 지난 한 해 극심한 불황의 계곡을 지나야 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소비가 줄어서? 아니면...

2. 2013년도 1사분기 한국 총 사료 공급량은 전년동기간 대비 104.7%, 양계 총 사료생산량은 94.9%, 종계는 92.9%, 육계는 94.7%로 전체적인 감소

2013년 1사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사료 공급량은 여전히 양돈이 이끌고 있어서 11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이미 9개월 가까이 큰 불황의 국면에서 벗어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양계는 94.9%로 상당히 줄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오랜 불황의 늪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이채롭기마저 하다. 이는 다양하고 슬기로운 양계업계의 자구 노력과 선택, 결정들이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 2013년 하반기 양계 전망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듯하다.

3. 2013 하반기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전망

선진국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인하여 지난해까지 하락되었던 국가신뢰 위기가 완화되고 있어서 세계경제 분위기가 하반기에는 다소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국 재정긴축으로 세계경기 회복속도는 더뎠던 듯한데 유로존의 하반기 호전이 예상되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현재의 선진국 경제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기는 하나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불안감도 배제할 수 없다.

〈표 1〉 2012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톤)

연도	육추	산란	종계	육계	오리	양계총계	양돈	축우	기타	총사료계
2009	304,760	1,944,655	299,918	1,913,327	475,611	2,388,938	5,331,896	5,621,530	590,510	13,932,874
2010	316,369	1,980,812	328,028	2,033,048	623,157	2,656,205	5,534,945	6,052,964	664,306	14,908,420
2011	314,466	2,010,032	327,445	2,096,432	730,205	5,478,580	4,481,696	6,031,950	672,200	16,664,426
2012	343,068	2,029,707	332,344	2,117,245	763,949	5,586,313	5,685,467	6,478,975	728,781	18,479,536
구성비	6.1%	36.3%	5.9%	37.9	13.7%	30.2%	30.8%	35.1%	3.9%	100.0%
2011대비	109.1%	101.0%	101.5%	101.0%	104.6%	102.0%	126.9%	107.4%	108.4%	110.9%
2010대비	108.4%	102.5%	101.3%	104.1%	122.6%	210.3%	102.7%	107.0%	109.7%	124.0%
2009대비	112.6%	104.4%	110.8%	110.7%	160.6%	233.8%	106.6%	115.3%	123.4%	132.6%

〈표 2〉 2012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톤)

구분		2013. 1~3 (A)	2012. 1~3 (B)	누계대비 A/B(%)
양계	육추	75,152 1.6	90,604 2.1	82.9
	산란	503,966 11.1	516,445 11.8	97.6
	육계	439,239 9.6	463,789 10.6	94.7
	종계	80,260 1.8	86,354 2.0	92.9
	소계	1,098,617 24.1	1,157,192 26.4	94.9
양돈	1,511,068 33.2	1,308,876 29.9	115.4	
낙농	329,465 7.2	324,730 7.4	101.5	
비육	1,263,767 27.7	1,219,514 27.9	103.6	
기타	354,709 7.8	367,611 8.4	96.5	
계	4,557,626 100.0	4,377,923 100.0	104.1	

세계경제는 BRICs가 주도할 것이며 유가 및 곡물가격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해 말 이후 미약하지만 국내경기는 호전되고 있다. 상고하저의 완만한 회복세로 3% 내외의 성장이 기대된다.

점차 세계교역이 증대되면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가계부채 노후대비 부족 등으로 소비회복은 더디게 증가할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로 지속될 것이고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리스크가 진정되면 원화강세를 보일 것이며 달러당 평균 1,070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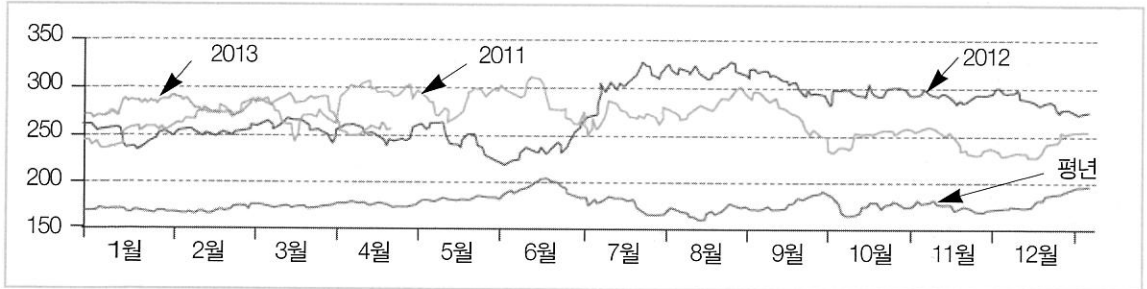
4. 2013년 국제 곡물 수급은 콩과 옥수수를 주축으로 약보합 안정세로 예상

2013년 1월 이후 국제 곡물가격은 하향세로 돌아섰다.

4월 현재 옥수수는 11.1%, 콩은 4.1%, 밀은 1.8% 하락했다.

〈표 3〉 옥수수 선물가격 추이, USDA Market News

(단위 : 달러/톤)



가. 옥수수 : 하향보합세

미국의 파종시기인 3~4월에 추위와 강우량이 많아 파종시기가 1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파종면적의 확대로 2013년 미국의 옥수수 재배 의향면적은 3,937만ha로 전년(3,932만 ha)보다 다소 증가했고 2011년 대비 약 5.8% 증가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1936년(4,128만 ha) 이후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파종 면적에 비해 생산량이 떨어져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에탄올 사용 증가로 옥수수 수출량 감소가 예상되고 미국 정부의 에탄올 정책과 작년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수급이 부족한 상태로 이로 인해 미국 내 옥수수 수입량은 3배 급증한 반면 수출량은 전년에 비해 48.2%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옥수수는 타이트한 재

고량을 유지하고 있어 옥수수 가격이 고가를 형성, 축산업자 및 에탄올 생산자는 저마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의 수출량은 한국의 경우 전년에 비해 89.5%, 일본은 42.6%, 멕시코는 58.0%가 급감했다. 그 결과 당분간은 가격차이가 큰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남미산 옥수수는 미국산 보다 10~30USD 정도의 경쟁력으로 수입되고 있다.

나. 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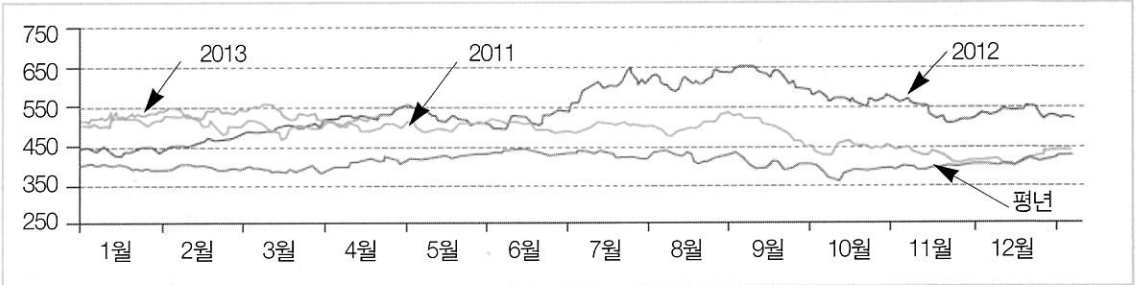
남미는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어 콩 수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중국과 미국의 콩 파종은 5월까지 지연될 예정이다.

세계 콩 수출량은 전월보다 37만 톤 하향 조정된 9,780만 톤(전년대비 +6.4%)으로 전망된다.

세계 콩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2.8%p 상

〈표 4〉 콩 선물가격 추이, USDA Market News

(단위 : 달러/톤)



승한 24.3%가 될 전망이며, 2013년 미국의 콩 재배면적은 3,121만 ha로 전년대비 3만 ha 감소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 밀

2012/13년 세계 밀 생산량은 전월 전망치보다 6만 톤 하향 조정된 6억 5,282만 톤(전년대비 -6.3%)으로 전망되며 세계 밀 소비량은 전월보다 494만 톤 상향 조정된 6억 8,400만 톤(전년대비 -1.3%)으로 전망된다.

EU-27 및 구소련지역의 수출증가로 세계

밀 수출량은 전월 전망치보다 310만 톤 상향 조정된 1억3,576만 톤(전년대비 -13.2%)으로 전망되며 세계 밀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3.1%p 하락한 25.4%로 전망된다.

2013년 미국 밀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USDA, 3.28) 총 2,282만ha로 2012년 보다 1.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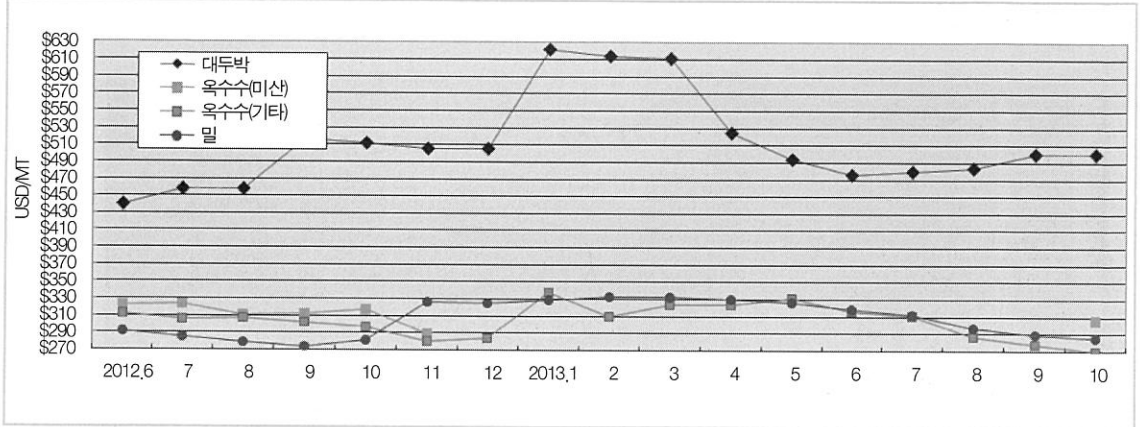
금년 상반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남반구 밀 생산량은 감소하나, 금년 5월 이후 수확되는 2013/14년 북반구 밀 생산량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밀 선물가격 추이, USDA Market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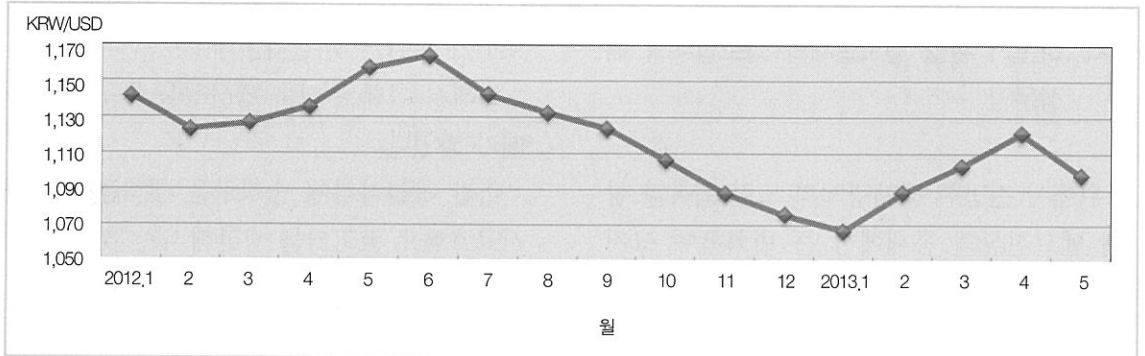
(단위 : 달러/톤)



〈표 6〉 옥수수/콩/밀의 한국도착 가격 동향



〈표 7〉 환율 동향



5. 2013년 상반기 한국의 배합사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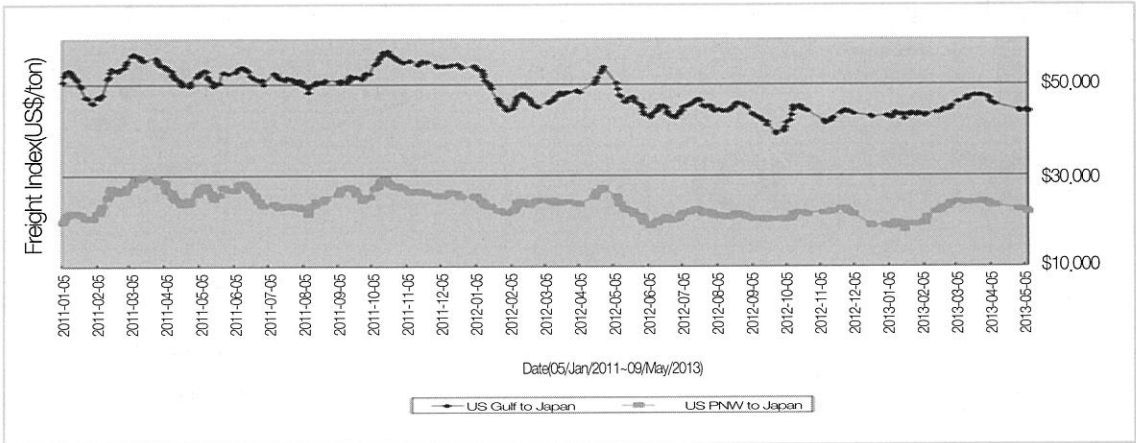
가. 원료 가격 동향

국내의 상반기 1~3월까지의 대두박 가격이 620달러로 출발하여 5월 현재 500달러 3사분기 480달러에서 4사분기에 다시 500달러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미산 옥수수는 전년 말 280달러대에서 1월 330달러 대로 상승하여 하반기 280달러의 마켓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미산 옥수수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사용하기 어려울 듯하다.

밀 또한 전년 10월 280달러에서 1월부터 5월 현재 330달러를 유지하다가 3사분기부터는 290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표 8〉 해상운임 동향, CAPI



나. 하반기 환율 강보합세와 과보합세의 해상운임

위에서 전망한 세계경제의 느린 회복과 함께 엔고현상의 틈새에서 큰 변화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토끼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생산성을 추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비싼 곡물가격에 슬기로운 대책은 최고의 사료효율로 닭고기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연중 균일한 닭고기를 생산합시다.

1.6kg + 사료효율 1.5

大鷄崛起! 🐓

6. 결론

중국의 AI 발생상황 추이에 따라서 중국의 소비변화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른 곡물 수입량의 변화가 국제 곡물 가격의 변화에 작용할 것이다.

2년만에 양계사업의 빛이 조금 보이는 듯하다. 시장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희소식에 사료가격도 하향 안정세라고 하니 두 마리